

국어 영역(A형)

7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사회)

정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침해 사례에 맞추어 특별법이 제정되다 보니 법률 간의 중첩이나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1년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개인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흔히, 개인 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정도로 생각하여, 개인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예를 들어 인사과 1팀에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가 있는 경우, ‘인사과 1팀 영수 씨’라는 정보는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 역시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즉,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 역시 개인 정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문, 홍채, 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특정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고, 나이,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은 특정 가능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다. 따라서 ‘인사과 1팀 영수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 이를 개인 정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언젠가라도 특정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악용에 의해 한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 담당자가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컴퓨터에 아무런 암호 장치 없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실제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법률적 규제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19.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3%

-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이란
독재의 목적 파악!

20.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93%

< 보 기 >

㉠. A 상점에서는 적립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암호화하여 관리하였다.

㉡. B 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여론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를 받아 여론 조사 기관의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

㉢. C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다가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외부로 유출하여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 위 사례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 ㉠ ㉠의 주민등록번호, ㉡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 ㉢의 아이디어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 ㉡ ㉠의 손님, ㉡의 응답자, ㉢의 고객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의 정보 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 ㉢의 C 회사가 만약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정보 처리 담당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x : 있다.
- ㉤ ㉡과 ㉢의 정보 처리 담당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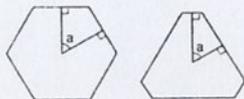
21. 뒷글로 보아,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81%

- ㉠ 특정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 특정성과 특정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81%)
- ㉣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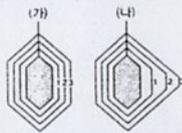
광물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로서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 광물의 결정 구조는 그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양상이다. 같은 광물일 경우 그 결정 구조가 동일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규칙적인 겹모양인 결정형(crystal form)도 동일하다. 그런데 실제로 광물들의 결정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니콜라우스 스테노는 등산길에서 채집한 수정의 단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는 수집한 수정의 단면도를 그려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수정 결정의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1>의 a와 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1> 면각 일정의 법칙

스테노는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해지는 이유가 ㉠ 결정 내부의 규칙성 때문일 것이라 짐작했다. 당시만 해도 그 규칙성의 이유가 되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결정 모양이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 20-㉠



<그림2> 결정의 성장 과정(결정의 수직 단면)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정에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광물의 작은 결정 두 개를, 같은 성분을 가진 용액 속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자.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그림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와 (나)는 같은 광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서로 같다. 이처럼 같은 광물의 결정은 그 면각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결정들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면각 일정의 법칙은 광물의 결정을 판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현대 광물학의 ㉢ 초석이 되었다.

22.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8/10

- ① 면각 일정의 법칙은 무엇인가? 2분간
- ② 면각 일정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3분간
- ③ 광물별 결정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5분간
- ④ 결정면의 성장 속도는 결정면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10%)
- ⑤ 같은 광물의 결정이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5분간

23.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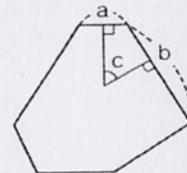
- ① 스테노는 ㉠을 추측하기는 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 ② 스테노는 ㉠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입증했다.
- ③ ㉠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X선이 개발되었다.
- ④ 스테노는 ㉠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교하여 분류 체계를 만들어 냈다.
- ⑤ ㉠을 분석한 내용이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24.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15 [3점]

20-㉢

<보기>

어떤 광물이 성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평 단면을 보이는 결정이 되었다. (단, 물질 공급 이전의 결정의 초기 모양은 정육각기둥으로 가정하고,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물질 공급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배제한다.)



- ① 지금까지와 같이 물질 공급이 지속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13%)
- ② 현재의 결정 모양은 a면보다는 b면으로 물질이 더 많이 공급된 결과일 것이다.
- ③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a면과 b면의 면적은 같았을 것이다.
- ④ 현재의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a면과 b면이 이루는 각 c는 항상 같을 것이다.
- ⑤ 결정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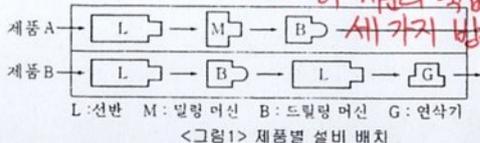
면이 좁아 ← 성장 속도 빠름
↑
물질의 공급량이 더 많음

25.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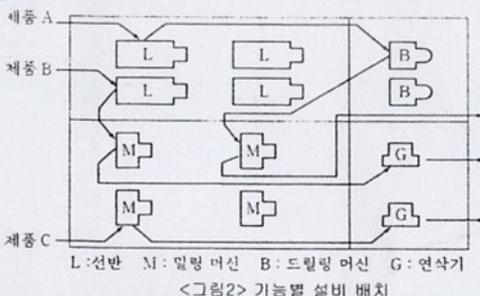
- ① 지붕돌
- ② 고임돌
- ③ 버팀돌
- ④ 굽은돌
- ⑤ 주춧돌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설비 배치란** 자재의 흐름이 정체됨이 없이 원활하도록 하여 자재의 불필요한 운반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은 노력으로 빠른 시간에 목적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비 배치의 방식은 주로 **제품의 종류나 그 수량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① **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 방식은 생산하려는 제품의 종류는 적지만 생산량이 많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각 제품별로 완성이 될 때까지의 공정 순서에 따라 설비를 배열해 부품 및 자재의 흐름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므로 자재의 운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전체 공정 관리가 쉽다. 그러나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정이 지연될 수 있고, 규격화된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설비 및 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규격이나 디자인이 변경되면 설비 배치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② **기능별 배치(Process Layout)**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고 제품의 디자인이 수시로 변하는 패션 의류나 규격화가 어려운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같은 기능의 설비들을 한데 모아 배치한다는 것이다. 기능별 배치를 하게 되면 동일한 설비들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 설비 관리가 쉽고,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비에 따라 자재가 이동하므로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제품별 공정이 서로 달라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③ **그룹 배치(Group Layout)** 방식은 기능별 배치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 배치 방식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방식의 핵심은 형태나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러한 제품군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설비들을 하나의 설비군으로 묶어 소그룹화된 작업장인 셀(Cell)에 배치하는 것이다. 하나의 설비군 안에서 특정 제품군에 속한 모든 제품들이 필요한 공정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공정 흐름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셀별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관리가 쉽다.

26.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3%**

- ① 설비 배치 방식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상 상황을 예로 들어 설비 배치 방식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기존의 설비 배치 방식을 소개한 뒤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설비 배치 방식이 변화해 온 이유를 상술하고 있다.
- ⑤ 각각의 설비 배치 방식이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27.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3%**

- ① ㉠은 전체 공정의 관리가 쉬운 반면, ㉡은 전체 공정 관리가 쉽지 않다.
- ② ㉠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반면, ㉡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 ③ ㉠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 **사은 비결**
- ④ ㉠은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반면, ㉡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 ⑤ ㉠은 자재의 흐름이 단순한 반면, ㉡은 자재의 흐름이 길고 복잡하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공장'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5%**

< 보기 >
 A공장은 다양한 패션 의류를 유행의 변화에 맞춰 디자인을 빠르게 바꿔가며 생산해 왔다. 그런데 유행이 달라져도 꾸준히 많이 팔리는 품목이 있어 재고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A공장은 이러한 품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설비 배치를 전환하려고 한다.

① 기존의 설비 배치 방식	유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별 배치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다.
② 부분적으로 설비 배치 전환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배치 방식으로는 꾸준히 많이 팔리는 품목의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③ 최적의 설비 배치 방식 모색	다품종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몇몇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룹 배치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10%)
④ 설비 배치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	거치는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조사해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에 따라 설비군을 묶어 본다.
⑤ 설비 배치 전환의 기대 효과	동일한 설비를 하나의 셀 안에 모아 둘 수 있어 설비 관리가 더 쉬워질 것이다.

4. 경영학과 오시면 '생산' 과목에서 배워도 좋은 개념 같은 경영학과 용어 3개

[29 ~ 30] 다음은 '승호'의 독서 기록장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읽은 책	멋진 신세계 독서(독서)		
작가	올더스 헉슬리	읽은 기간	2013. 3. 2. ~ 3. 6.
독서 활동 기록	<p>㉠ 며칠 전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나는 과학 기술이 참된 인간의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를 읽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과학 기술의 부정적 부산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다.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을 보고, 나는 이상적인 인류의 미래상을 그린 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제목은 윤리 시간에 배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떠올리게 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소유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연 멋진 신세계가 가능할까?',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을 미래 사회에서 인류가 행복할까?' 등의 의문이 떠올랐다.</p> <p>'멋진 신세계'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안락한 사회였지만, 이 세계의 주민들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에 의해 태어나 부모가 없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작가에게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없앴습니까?'하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며 작가가 '멋진 신세계'를 그렇게 그려 놓은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해 나처럼 회의적인 생각을 품었는지도 궁금했다. 그런데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문제는 '멋진 신세계'의 사회 시스템을 세밀하게 이해하며 읽지 않은 나의 독서에 있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었다.</p>		
느낀 점	<p>작가는 과학 기술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는 과학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나 또한 과학 기술을 맹신하며 그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반성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지 경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p>		

29. '승호'의 독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전 활동
 - 책의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을 했다.
 -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책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었다. ①
- 읽기 중 활동
 - 작가의 의도를 추리하면서 작가와 의사소통하는 독서를 했다. ②
 - 독서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서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했다. ③
- 읽기 후 활동
 -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반성했다. ④
 -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았다. ⑤

30. ㉠과 ㉡에 주목해 '승호'의 독서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86%**

- ① '승호'는 ㉠의 독서 상황을 고려해 ㉡과 같이 독서 활동의 의미에 대해 서술했군.
- ② '승호'는 ㉠의 독서 목적에 따라 참고 자료를 조사해 ㉡과 같은 결론을 내렸군.
- ③ ㉠에 나타난 '승호'의 가치관이 ㉡과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겠군.
- ④ ㉠에 제시된 경험 때문에 '승호'는 ㉡과 같이 책 내용의 타당성을 비판한 것이겠군.
- ⑤ ㉠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고 '승호'는 ㉡과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는 사이에도, 밖은 간간이 어둡 저편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창문이 딸그락거렸다. ㉠ 전신주 끝을 물고 웅웅대는 바람 소리, 짹짹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 난로에서 툭툭 튀어 오르는 톱밥. 그런 크고 작은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토해 내는 늑은이의 기침 소리와 함께 대합실 안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들은 각기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다.

대학생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말없이 모여 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본다. 모두의 뺨이 불빛에 발강게 상기되어 있다. ㉡는 처음으로 그 낮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 정말이지 산다는 것이란 때로는 저렇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년은 무릎을 굽혀 바게쓰 안에서 톱밥 한 줌을 집어 든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 넣어 본다. 흐르르. 뽕비꽃이 피어나듯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 이내 사라져 들고 만다. 청년은 그 짧은 순간의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다시 한 줌 집어넣는다. 이번엔 아버지와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한 줌을 조금 천천히 흩뿌려 넣는다. 친구들과 노교수의 얼굴, 그리고 강의실의 빈 의자들과 산디밭과 교정의 풍경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음울한 표정의 ㉣는 대학생이 아까부터 톱밥을 뿌려 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는 참이다. 대학생의 얼굴은 줄곧 상기되어 있다.

이 젊은 친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톱밥을 한 줌 집어낸다. 그리고는 대학생이 하듯 달아오른 난로에 톱밥을 뿌려 준다.

㉠ 호르르. 역시 빠비꽃 같은 불꽃이 환히 피어오른다. 사내는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하다. 허 씨 같기도 하고 전혀 낯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도 같은, 확실치 않은 얼굴이었다. ㉡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사내는 다시 한 줌의 톱밥을 집어 불빛 속에 던져 넣고 있다.

어느새 농부도,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와 촌심이기도 이젠 모두 그 두 사람의 치기 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두 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젊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역장은 그 사람이 재 너머 오 씨 큰아들임을 알았다. ㉢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웬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 버렸다.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서 있던 젊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 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집이 어디며, 또 어디서 왔는지 역장은 전혀 모른다. 다만 이따금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와다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었다.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애겐 갈 곳이 없었을까도 모른다. 그녀에게 있어서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리라.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올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들어 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땀국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귀퉁이엔 보일락 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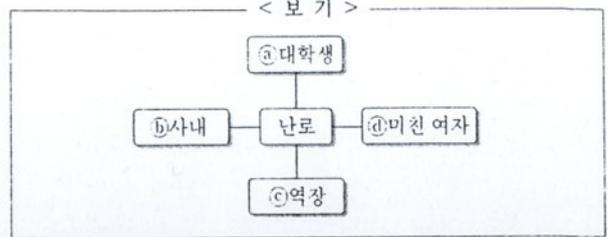
이거 참 난처한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 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 쥐어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 임철우, 「사평역」 -

* 완행열차: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달리며 각 역마다 멎는 열차.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6%



- ① 추운 겨울날의 난로는 연관성 없는 인물인 ㉠과 ㉡가 한 자리에 있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군.
- ② ㉠이 난로에 톱밥을 넣으며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는 행동은 그 대상이 바뀌어 ㉢에게서 반복되고 있군.
- ③ ㉠과 ㉡가 난로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소통하고 있다면, ㉢은 소통의 상황에서 소외되고 있군. X
- ④ ㉠이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난로 곁에 다가오는 데서 ㉠의 처지를 짐작해 볼 수 있군.
- ⑤ ㉢이 난로에 톱밥을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은 ㉠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군.

32. 야간 완행열차의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3%

- ① 야간 완행열차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처지에 어울리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② 열차가 두 시간 연착하게 설정함으로써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인물들이 완행열차에 오르는 것은 이들이 인생의 여정을 이어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열차의 출발은 서술의 초점이 역에 남아 있는 인물들에게 옮겨가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인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열차는 그들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X

33. ㉠~㉣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6%

- ①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합실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머릿속 생각을 인물에게 직접 듣는 것처럼 느끼도록 서술하고 있다.
- ③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불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그가 취하는 행동의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X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대시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 네 숨결 처음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러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

먼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척추를 휘어 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 네 뻗어 가는 끝을 하냥*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름 꿰어 있는 ㉦ 겹대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 나희덕, 「뿌리에게」 -

- *먼우물: 먹을 수 있는 우물물.
- *하냥: '늘'의 방언.

"차량 핵심"을 향려하기!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4%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물을 활용해 대상의 부재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특정한 시적 공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 화자의 일관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포해방사, 호파

[35~36]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모성(母性)'은 희생적 사랑이다. 이 사랑에는 포용력과 따뜻한함이 있다. 나희덕의 「뿌리에게」는 베짱이를 행하는 '흙'과 그 베짱이를 받아 성장해 가는 '뿌리'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이와 같은 모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와 동시에 '흙'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모성'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35.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92%

- ① ㉠: '더운 김'에서 '흙'이 지닌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
- ② ㉡: '밝은 피'를 '뿌리'에게 주는 모습에서 '흙'의 희생적 사랑을 느낄 수 있어.
- ③ ㉢: '뿌리'를 감싸 안아 주는 '흙'에서 포용력을 찾을 수 있어.
- ④ ㉣: '뿌리'를 통해 포용력의 회복을 기약하는 '흙'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어. X
- ⑤ ㉤: '겹대기'가 된 '흙'에서 마지막까지 희생을 감내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

배짱 베행 다시 배짱으로 돌아가는 중

36. ㉠→㉡→㉢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모성'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64%

- ① 모성은 영원히 지속된다. (반복되며 계속되겠구나!)
- ② 모성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하다.
- ③ 모성은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다. (25%)
- ④ 모성은 언제나 강인하다.
- ⑤ 모성은 내적으로 성장한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소설

[앞부분 줄거리] 남원에 살았던 최척과 옥영 사이에는 만아들 문석이 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옥영은 돈우(頓宇)라는 왜병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갔다. 돈우는 듣는 일본 병사로, 부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전쟁 전에는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노를 잘 저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왜장 소서행장이 뱃사공의 우두머리로 삼아 조선에 데려온 것이었다. 돈우는 영리한 옥영을 사랑하여 도망치지 않도록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옥영이 여자인 줄은 끝내 몰랐다. 옥영은 이미 삶에 뜻을 잃었기에 여러 번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해주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륙불(丈六佛)*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이다.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죽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옥영은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다시 삶에 희망을 갖게 된 옥영은 억지로라도 먹으며 힘을 내고자 하였다. 돈우의 집은 일본 나고야(名古屋)에 있었는데 그 아내는 늙고 딸은 어렸으며, 다른 남자 가족은 없었다. 돈우는 옥영을 집 안에만 있게 하고, 바깥으로는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옥영은 자신이 '남자인 체하고 있었기에 거짓으로 말했다.

"저는 본디 몸이 작은 데다가 약골(弱骨)이라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을 때에도 장정들이 하는 일은 살하지 못하